

로버트 C. 뉴먼 박사, 공관복음서, 강의 12, 공관신학

© 2024 Robert Newman 및 Ted Hildebrandt

그걸 시작해서 여기로 돌아가자. 그럼 그냥 그렇게 할게요. 이걸 꺼내. 좋아요, 여기서 공관복음서 과정을 계속하겠습니다. 12개 단원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열 번째 단원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고, 그것은 공관복음서의 성경 신학입니다. 글썄요, 먼저 성경 신학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한 후, 여기서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 신학이라는 문구는 두 가지 다른 용도가 있습니다.

한 가지 용도인 성경 신학은 비성경 신학과 대조됩니다. 성경 신학은 성경의 가르침, 즉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교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 신학은 정통 신학입니다.

하지만 이 용어의 또 다른 용도는 체계 신학과 대조됩니다. 성경 신학과 체계 신학. 이런 의미에서 성경 신학은 성경의 일부, 보통은 전체가 신학을 그 자체의 용어, 그 자체의 어휘, 이미지, 구조, 그런 종류의 것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 신학은 요한이 복음서나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어떤 용어, 그림 등을 사용했는지,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어떤 용어를 사용했는지, 이사야가 그의 예언에서 어떤 용어를 사용했는지 등을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개인을 통해 일하셨고, 종종, 글썄요, 그분은 그들을 다른 능력 등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그들을 문화와 그들의 다양한 기질 등을 가지고 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을 역사상 다른 시기에 두셨고, 그래서 때때로 다른 용어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용법에 관심이 있지만, 물론 우리의

연구는 두 가지 의미에서 성경 신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신학이라는 주제는 정말 광대한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단지 샘플을 살펴볼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원한다면, 공관복음서에서 통일된 주제를 찾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서의 용어는 종종 신약의 나머지 부분과 다르며, 같은 사건을 다루는 요한복음과도 다릅니다. 신약의 나머지 부분과 구별되는 공관복음서의 강조점을 파악하는 한 가지 방법은 단어 통계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서에서 다양한 단어의 사용 빈도를 신약 전체에서 해당 단어의 사용 빈도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샘플 연구로서, 우리는 신약 전체에 대한 시놉틱 복음서의 다음 단어 빈도를 고려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시놉틱 복음서의 텍스트 길이는 신약 전체의 약 $1/3$, 또는 0.33 이라고 합시다. 그러므로, 단어가 신약에서 발생하는 것의 $1/3$ 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면 시놉틱 복음서에서 특히 흔하고, $1/3$ 보다 훨씬 적으면 시놉틱 복음서에서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여기 차트가 있는데, 저는 그리스도론, 사랑, 믿음, 구원, 용서, 왕국이라는 주제를 살펴보고, 그런 다음 이러한 주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용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 그리스도론을 살펴보겠습니다. 글썬요, 관련된 단어인 그리스도, 문구인 인자, 그리고 문구인 신의 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글썬요, 그리스도라는 용어는 공관복음서에서 40회 나오지만, 신약 전체에서는 750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수로 계산하면 0.05 인데, 0.33 에 비하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용어는 실제로 신약의 나머지 부분과 비교했을 때 공관복음서에서는 드뭅니다. 반면에 인자라는 용어는 공관복음서에서 70회 나오고, 신약 전체에서는 87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빈도는 0.8 회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신의 아들이라는 용어는 신약 전체에서 79번 나오는데, 공관복음서에서는 26번 나옵니다. 이는 0.33으로 우연히 평균에 맞습니다. 예

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공관복음서에서 드문 용어이고, 사람의 아들은 드물게 흔한 공관복음서 용어이고, 신의 아들은 신약 전체에서 나타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사랑에 대한 두 가지 용어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기서 사랑에 대한 다양한 동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 agapao 와 명사 agape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Agapao는 전체 신약에서 126회 나오는데, 공관복음서에서는 23회 나오므로, 0.18 대 0.33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아가페는 전체 신약성경 107권 중 공관복음서에서 두 번만 나오므로 0.02로 매우 낮습니다. 예수께서 공관복음서에서 매우 사랑하는 일을 자주 하시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용어는 표준 공관복음서 용어가 아닙니다. 요한에 대해 생각해 보면, 그 단어가 매우 빈번하게 나온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 다시 두 단어를 가져가자면, 동사 pisteuo , 신뢰 또는 믿음, 그리고 pistis , 신뢰, 신뢰성, 믿음 등. Pisteuo , 223개 중 34개, 그러니까 0.15,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pistis는 233개 중 24개이므로 0.10이고 낮습니다. 놀랍게도 믿음은 실제로 일반적인 공관복음 용어가 아니지만, 다시 말하지만, 성경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그것이 큰 아폴론 용어이고, 그것은 큰 요한 용어이지만 공관복음에는 없습니다. 구원.

여기서 우리는 세 단어를 골랐습니다. 동사 sozo , 구하다, 추상 명사 soteria , 구원, 그리고 행위어 soter , 구세주. Sozo , 42개 중 4개, 0.09, 낮음. Soteria, 103개 중 45개, 0.44, 높음.

그리고 soter , 24개 중 2개, 0.08, 낮음. 그래서 복음서들은 구출, 구원, 구원에 대해 꽤 자주 언급하지만, 이 시점에서 언급된 동사 자체나

행위자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다시 한번 약간 놀랍습니다. 다만, 제가 공관복음서의 문학적 특징에 대한 논의에서 말했던 것처럼, 공관복음서들은 부활 후의 관점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를 바라보도록 돕고자 하며, 그 중요성이 분명해졌지만, 필자들은 분명히 그런 종류의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보였는지 느끼게 하려고 합니다.

용서, 동사 *aphiemi* , 용서하다, 그리고 용서, *aphasis* , 용서하다, 144개 중 114개, 0.79, 그래서 높죠. 그리고 *aphasis* , 17개 중 8개, 0.47, 높지만 *aphiemi* 만큼 높지는 않아요 . 그래서 복음서는 용서에 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왕국, 바실레아 , 바실레우스, 왕, 그리고 바실레우오 , 통치하다, 바실레아 , 160개 중 119개, 0.74, 그래서 높음. 왕국은 복음서, 특히 공관복음서의 주제이며, 이전에 어떤 식으로든 읽었다면 짐작했을 것입니다. 바실레우스, 110개 중 44개, 0.40, 약간 높음.

그리고 바실류오 , 통치하다, 19개 중 4개, 0.21, 약간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아시다시피, 왜 그리스도는 공관복음에서 비교적 드물고, 인자는 엄청나게 흔한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다양한 반응을 얻지만, 이것은 브레다의 메시아적 비밀이 근거하는 것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은 마을로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메시아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안녕하세요 , 여러분,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게 하시기를 계획하신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즉시 양극화시켰을 것이고, 당국은 회개하지 않고 그에게 굴복해야 했고, 분명히 그의 대속적 죽음에도 어느 정도 간섭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없습니다. 신은 거기에서 모든 줄거리와 다양한 줄거리가 함께 엮이는 것을 알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적어도 일부입니다.

왜 사람의 아들이 엄청나게 혼한 걸까요? 보기 쉽지 않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하는 데 사용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용어는, 만약 여러분이 올바른 구절을 찾았다면, 기본적으로 저는 메시아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지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물론 그는 인간입니다. 아니면, 글썄요, 하나님께서 에제키엘을 인자라고 부르실 때 무슨 뜻일까? 그리고 그것은 그저 인간을 의미할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로 선택했거나 그런 뜻일까?

그래서 모호하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게 의도였던 것 같아요. Herman Ridderbos의 책 *The Coming of the Kingdom*은 공관복음서의 성경 신학으로, 공관복음서의 주요 주제를 왕국의 도래로 보고 이러한 특징과 다른 특징들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신학에 대한 샘플 연구로서, 우리는 여기서 Ridderbos의 주요 요점을 요약하고, 그와 동의하지 않는 부분과 그런 종류의 것들을 가끔 제안하고자 합니다. 왕국은 공관복음의 성경 신학에서 주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문구가 사용된 구절이 31개 있으며, 모두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나오는 구절이 49개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4개만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구절과 그 중 어느 쪽도 어미 없이 왕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문맥상 헤롯의 왕국이나 카이사르의 왕국 또는 그런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왕국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다른 구절들을 연구할 것입니다.

게다가 다른 구절들은 왕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듯하지만 그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어 연구를 책이나 무언가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내려고 할 때 겪는 요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문구가 사용된 곳, 동의어가 사용된 곳, 그런 종류의 곳을 찾아야 합니다.

글쎄요, 우선, 왕국이 특징지어집니다. 하늘나라와 신의 나라 라는 문구 사이에 큰 구분을 두는 것은 실수인 듯합니다 . 마가와 누가는 전자의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하늘나라도 사용하지 않고, 마태가 하늘나라를 사용한 곳에서 후자, 신의 나라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4:17 대 마가복음 1:15 또는 마태복음 5:3 대 누가복음 6:20. 사실, 마태는 마태복음 19:23과 24에서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을 병행해서 사용합니다. 오늘날의 표준적인 추측은 마태가 때때로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대체하는 것을 사용하는 경건한 유대교의 관습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글을 쓰는 현대 정통 유대교도들 사이에서는 하나님 대신 GD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짜 히브리어를 쓸 때는 Elohim 대신 Elohim을 씁니다. H 대신 K 를 쓰는 식이죠. 아니면 그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것은 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현대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도 이런 종류의 것에서 유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야훼의 자음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더하면 여호와가 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

글쎄요, 신약시대에 신을 대신하는 대용어 중 하나는 천국이었습니다. 다른 대용어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름, 장소, 그런 종류의 것들.

글쎄요, 리다보스는 예수가 공관복음에서 말한 왕국이 다음과 같은 용어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왕국은 신권적입니다. 왕국은 역동적입니다.

왕국은 메시아적입니다. 왕국은 미래입니다. 하지만 왕국은 또한 현재입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 한두 마디 하죠. 신권정치는 꽤 직설적이죠, 그렇죠?
 왕국은 신이 다스립니다. 그것은 용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의 왕국, 즉
 신의 왕국, 그리고 천국의 왕국, 그리고 이 특정 왕국에 대해 말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통치하셨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국이라는 용어가 주로 쓰인다는 의미에서 역동적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용어는 주로 우리 영어 단어 왕국처럼 쓰이지 않습니다.
 우리 영어 단어 왕국은 주로 공간적 영토를 지칭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영국의 왕이나 여왕이 다스리는 영토이고, 이 경우, 영국,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그리고 영국입니다. 하지만, 왕국이라는
 용어는 왕의 활동을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의
 통치입니다.

천국의 통치, 당신이 원한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통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추종자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왕국, 우리가 우물에서 말할 수 있는 것, 우리는
 돌아와서 이미와 아직이 아닌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라는 의미에서 그것은 당신이 원한다면 마음과 그의 추종자들의 삶에
 있지만, 언젠가는 이 다른 의미에서 보편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신권적이고 역동적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중재자, 메시아를 통해
 통치한다는 점에서 메시아적입니다. 메시아는 기름을 바르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용어이고, 크리스토스는 기름을 바르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용어이며, 둘 다 하나님께서 어떤 유형의 활동에서 그의 중재자 또는
 대리인으로 기능할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공관복음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이것을 언급하기 위해 인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지만 모호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자는
 다니엘 7장에서 매우 중요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는 지상의

인간들의 연속적인 왕국을 나타내는 네 왕국이 야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자와 같은 분, 즉 인간과 같은 분이 하나님 앞에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하고 보편적인 왕국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영원한, 보편적인 통치자가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보편적인 통치자는 기본적으로 메시아의 정의입니다. 그 용어는 거기에 사용되지 않았지만, 그 구절에서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적이예요. 왕국은 미래에 대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강력한 종말론적 용어로 묘사되고 아직 오지 않은 것으로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국이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에서도 오는 것처럼 어떤 실제적인 의미에서 현재에 존재합니다.

이 해결책은 유대인들에게 제공되었지만 거부된 왕국에 대한 오래된 전통적인 경륜적 강조보다 더 나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왕국은 철회되었고 천년왕국이 될 때까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구절을 살펴보면 어떤 의미에서 이미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리더보스 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현재이고, 그 다음에는 이 왕국이 임시적이라는 논의로 이끕니다.

그러므로, 우선 하나님의 왕국이 현재 존재하고, 이미 성취되었으며, 이미 왔다는 생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왕국의 현재적 측면은 여러 주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악한 자 사탄은 이미 이겨졌습니다.

그는 예수의 유혹에 패배했습니다. 예수의 유혹이 어떤 면에서 아담과 이브의 유혹과 분명히 평행하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들의 유혹은 에덴동산에서 있었고, 그는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혹에 대해, 그들은 광야에 있었고, 그는 광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유혹에서 그가 패배한 것에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기고 있고, 그들조차도 그의 권능을 통해 사탄의 권능을 이기고 있습니다.

악마들의 다소 아첨하는 행동, 그리고 아마도 사탄의 몰락에 대한 행동은 누가복음 10:8-19, 누가복음 11:21, 그리고 복음서의 다른 평행 구절에서 우리에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 중 하나는 실제로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거나 미래를 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Ridderbos 와 제가 의견이 다른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적인 능력은 이미 그의 첫 번째 오심에서 보여지고 있으며, 창조의 회복을 가시화하고 있으며, 사실, 당신이 치유의 기적과 자연의 기적 등을 살펴보면, 그것이 주제 중 하나입니다.

창조의 회복과 메시아 예언의 성취는 마태복음 11:5과 마태복음 8:17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하나님은 누가복음 7:16에서 군중이 외치는 것처럼 그의 백성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7에서 예언된 것처럼 좋은 소식은 이미 선포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등등. 그리고 이사야 61 :1-2,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읽고 오늘이 성취되었다고 선포하신 것, 누가복음 4:21. 예수의 추종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3-10, 그들에게는 왕국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보는 것을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3:16, 마태복음 13:17.

이 날을 위해 구원이 왔습니다, 누가복음 19:9. 너희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누가복음 10:20.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는 이미 여기 계십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는 메시아로 확인되었습니다. 제 아들이 세례를 받을 때, 마태복음 3:17과 평행을 이루고, 변형될 때, 마태복음 17:5와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제를 이어받습니다, 아들아, 사무엘하 7장과 시편 2 장에서. 인자는 많은 구절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눈 말씀은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11:28, 12:30, 마태복음 10:32-42.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현존합니다. 하지만 이 현존 왕국은 임시적이며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성경적 표현은 단순히 현재의 왕국이나 미래의 왕국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1960년대 초에 듀크에서 필수 성경 과목을 수강했을 때, 자유주의자들은 규칙적으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글썄요, 두 가지 다른 관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왕국이 왔다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종말론적이라고 생각했고, 어떻게 된 일인지, 출처들이 이 두 가지를 섞었어요.

하지만 사실, 둘 사이의 긴장은 매우 성경적인 주제입니다. 왕국은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두 요소 모두 발생합니다.

복음서들은 현재-미래 또는 선재, 재림의 구분을 사용하지 않지만, 오히려 이 현세와 장래의 구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10-30장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 11:6에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에게 사자들을 보낼 때 그를 괴롭히는 문제에 반영된 긴장이 있는 통일성을 봅니다.

당신이 오실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십시오.
 요한은 이미 이것들이 메시아에 대해 예언된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의 시대는 여전히 계속됩니다.

사탄은 여전히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왕국이 임시적인 한 가지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베드로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31 . 가라지는 밀과 함께 자라고 있으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악마들은 예수께서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러 오셨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마태복음 8:29. 그러므로 악한 자의 시대는 계속됩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단지 표적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진짜 기적이지만, 그것들은 곧바로 완성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들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그것들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조차 제한되고 어떤 식으로든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벧새다 못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온통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한 사람을 치유합니다.

그러므로 징조들은 왕국의 도래를 나타냅니다. 그것들은 끝을 가리키지만, 그것들은 올리브산 담화에서 우리에게 묘사된 끝의 시작조차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작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복음 전파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말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먹이를 주어서 먹고, 원한다면 다른 코스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국의 신비를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드러내고 감추기 위해 비유로 군중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왕은 여기 있지만 왕국은 아직 예상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왕국의 비유는 또한 파종은 예수의 오심으로 시작되지만 수확은 왕국의 진전이 군사적 정복이 아니라 성장의 관점에서 묘사되는 시대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심판은 지연됩니다. 가라지는 시대가 끝날 때까지 밀과 함께 자라도록 허용됩니다. 파운드의 비유에서 주인은 그의 왕국을 받기 위해 떠나가고 그런 다음 돌아올 것입니다.

염소에 대한 내용 에서 예수에게 행한 일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이 지연 동안 왕국은 예수의 말씀과 제자들의 수고를 통해 일합니다. 모든 것은 아니지만 여러 성장 비유가 말씀의 성장을 묘사합니다.

파운드와 달란트의 비유는 종들이 맡겨진 것을 사용할 시간을 묘사합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이 노동에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포함됩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정원사가 그 주위를 파고 더 많은 비료를 넣을 포도원의 무화과나무 비유는 회개할 시간이 아직 있음을 나타냅니다.

찾는 것은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의 잃어버린 양 재료와 누가복음 15장의 잃어버린 자와 동전과 아들의 비유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천사들이 시대의 끝에 거둔 추수와 대조적으로, 여기에서 추수는 이 시대에 예수의 추종자들에 의해 거둔 것입니다(마태복음 9:35-38). 주님의 종 재료는 임시 왕국에 속합니다 .

공관복음서의 그리스도론에는 두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과 주님의 종입니다. 따라서 다니엘 구절과 이사야 구절을 원하시면 읽어보세요. 전자는 다니엘 7장을 통해 강조되지만, 모호하게도 예수의 왕권이 강조되고, 후자는 주님의 종으로서 그의 순종과 고난을 강조합니다 . 광야의 유혹은 영광의 길이 순종, 고난, 고난을 통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

예수께서는 빠르고 화려한 길, 성전에 부드럽게 착륙하는 길, 사탄에게 절하고 세상의 모든 왕국을 얻는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40-55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구절을 성취한 것입니다. 메시아적 비밀은 거부에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왕국과 예수의 십자가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글썄요, 십자가 이전에는 분명히 왕국이 미미하게만 나타났습니다. 십자가형은

어떤 의미에서 최후의 심판을 연기하여 임시적인 현재 왕국을 위한 공간을 열었고, 복음 전파는 실제로 부활 이후에야 발전합니다. 그래서 리더보스가 왕국 복음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왕국의 이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우리는 왕국이 좋은 소식의 두 가지 측면을 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구원과 그것은 확실히 좋은 소식과 계명처럼 들리지만, 이 다소 느슨한 시대에 있는 우리 대부분에게는 좋은 소식처럼 들리지 않는다. 엄밀히 말해서, 좋은 소식은 소식이 아니다.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 특히 억압받는 경건한 이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특히 누가가 제시한 행복은 축복과 저주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어 더 명확합니다.

억압받는 경건한 자들은 불의한 재판관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새로운 언약을 포함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의 백성인 새로운 이스라엘을 포함한다.

어떤 구원이 제공되고 있는가? 어떤 구출이 제공되고 있는가? 글썄요, 리더보스는 그것이 죄 사함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오심과 사역에서 성취됩니다. 그의 구원에 대한 복음은 랍비의 보상 교리와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바울의 오래된 관점과 바울의 새로운 관점 등으로 조금 안내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부분의 줄에서 이 특정 문제에 대한 바울의 오래된 관점에 동의한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복음은 랍비의 보상에 대한 관점과 정반대입니다.

누가복음 18:9-14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를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특히, 이 세리는 세리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현재의 관계이자 미래의 행복으로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아들인 예수의 오심으로 성취됩니다.

그것은 획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획득한 것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집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님이 획득하셨으므로, 그는 우리를 위해 그것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집니다 .

이것은 복음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기본적으로 당신의 삶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한 쪽에서 이 주권-구원 논쟁에서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적 그림은 당신이 실제로 구원받았다면 이러한 것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명은 어떻게 복음에 들어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의도하신 것은 그들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모든 심판과 지옥과 그런 종류의 문제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불의하게 하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의로움으로 요약됩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다른 모든 가치는 왕국을 위해 희생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행은 왕국의 현존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율법, 산상 설교를 온전히 바침으로써 율법을 성취합니다. 사실 산상 설교는 율법에 대한 랍비적 해석에 대한 반대를 제시합니다.

당신은 그 말을 들었지만, 나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등등. 예수님은 법에 반대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 것에 반대하셨습니다. 반율주의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과는 다소 다른 견해입니다.

왕국과 교회. 리더보스는 왕국이 교회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묻습니다. 리더보스는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제안합니다. 그의 규칙은 이것이 일어날 것이고 이것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왕국의 행복을 공유하고, 물론 그들은 메시지를 전파하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본보기가 됨으로써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합니다. 리더보스는 왕국이 주님의 만찬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주님의 만찬이 두 가지 주제를 보여준다고 제안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종말론적 왕국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 나의 피와 몸, 하지만 종말론적 왕국, 나는 이것을 왕국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실 때까지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등등.

그리고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오심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의 만찬은 왕국의 시작과 완성을 구별합니다. 이것은 만찬의 임시적 성격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오 쿠카로가 주님의 만찬에 대한 박사 학위 논문을 썼고, 종교 개혁 교사 중 한 명이 성경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는 이것이 종말론적 왕국의 그림이라고 말했지만, 당신은 작은 잔의 만찬을 마시거나, 성배에서 한 모금 마시고, 작은 빵 한 조각을 먹는 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만찬 자체로 착각하지 않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찬의 임시적 성격에서 볼 때, 그녀는 단지 사소한 이야기일 뿐이고, 그녀는 내가 올 때까지 주목할 만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우리의 식탁 교제의 그림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제물로 그려내며, 새로운 언약, 나의 피 속의 새로운 언약을 시작합니다. 거기가 흥미롭습니다.

모세가 새 언약을 선포할 때, 그는 이것이 언약의 피라고 말하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바깥쪽에 뿌립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신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흥미로운 대조도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입장에 반하여, 주님의 만찬은 희생 그 자체라기보다는 희생의 식사입니다. 구약의 배경에서 희생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동물은 요리되어 감사 제물이나 서원 제물 또는 무언가를 위해 준비됩니다. 여기서의 식사를 합니다. 희생 자체가 이미 한 번 영원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볼 수 있지만, 복음서에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더보스는 왕국의 미래적 완성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보통 예수와 제자들이 재림이 1세기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이 문제에 대한 표준적인 자유주의적 관점입니다.

하지만 리더보스는 이것이 불편한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버림으로써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좋은 방법론적 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서에 대한 자유로운 취급에서 볼 수 있는 특징 중 하나는 자료를 매우 정교하게 나누고 이러한 다른 것들을 옹호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서클과 그룹에 대한 정교한 논의입니다.

하지만 그들 각자는 사물에 대한 매우 단순한 관점을 옹호합니다. 성경적 그림은 분명히 이단자들이 많지만, 성경과 그것을 따르려는 예수의 참된 추종자들에 대한 통일된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르침 자체에는 약간의 복잡성이 있습니다. Ridderbos는 예수의 예언에서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의 열정적인 진술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들의 그림으로 인도하고 거기서 생겨납니다. 그리고 파루시아 진술이 있는데, 거기서 생겨나서 우리를 다니엘의 인자로 다시 인도합니다. 이것들은 부활 전에는 함께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모아야 할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8:16-20에 나오는 대명령은 이 신비의 베일을 벗기고 구원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 이것은 이전에는 암묵적으로, 이방인에게는 너무나 가벼운 것이었지만,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부활은 예수의 종으로서의 역할과 인자로서의 역할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드러낸다.

그의 십자가 처형, 성전 휘장 찢어짐, 지진, 부활의 사건들은 시대의 끝, 즉 파루시아를 예고합니다. 시대의 끝 자체는 예수의 부활 이후의 기간을 위한 방향 지침, 목표입니다. 제자들의 일과 목표는 이제 두 번째 오심의 관점에서, 즉 왕국의 종말론적 도래에 앞서 큰 일이 있다는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파루시아가 오기 전에 얼마나 긴 시간이 경과할지에 대한 힌트를 주지 않는다. 예수의 제자들은 시대를 분별하라는 부름을 받는다. 재림은 갑작스러울 것이지만, 표적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분명히 그 발생을 인식하기 위해 표징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번개가 번쩍이는 예를 들어주셨는데, 잘못된 방향을 보고 있어도 번개가 보일 것입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번개가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3마일 떨어진 곳에 시체가 있습니다. 그 거리에서는 시체를 볼 수 없지만 독수리가 그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므로 재림 때 바로 거기에 있지 않아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모든 징조들이 있을 것입니다. 리더보스는 예수의 주요 종말론적 가르침은 올리브 산 설교, 마태복음 24-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슬픔의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는 큰 환난이 있고, 그 다음에는 파루시아, 즉 재림이 있습니다. 리더보스는 큰 환난이 예루살렘의 함락을 가리키지만, 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특정 요점에서 그와 동의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재림이었고, 다른 재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극단적인 전파주의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산 담화는

적어도 그런 내용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더보스의 것과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 예루살렘의 함락을 둘러싼 사건은 재림을 위한 일종의 드레스 리허설이라는 것입니다. 리더보스는 마태오와 마가가 예루살렘의 함락과 재림이라는 두 가지 모티브를 합쳤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제 대답은, 재림과 관련된 예루살렘의 또 다른 함락이 있을 것이고, 마음에 드신다면, 첫 번째 함락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시간 제한 선언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것은 자유주의 신학의 표준적인 주제입니다. 페리 필립스는 코넬에 있을 때 한 번은 파이크 주교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세이지 채플에 갔습니다. 그는 파이크 주교의 말씀 중 하나가 예수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2,000년이 지났고 등등. 사실, 그런 종류의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예측되었습니다. 리더보스가 예수가 이 세대로 의미한 바에 대한 해석은 리더보스가 시간적 지시가 없는 확실성이라고 읽었는데, 저에게는 다소 약해 보입니다.

저는 예수께서 구약의 많은 예언에서 흔히 있는 일을 하신다고 말하는 대신 이 언급을 지지합니다. 즉, 청취자들에게 미래의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들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상상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아들들 앞에서 유언장을 남기면서, "너, 르우벤아, 이 일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이 유다에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일들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훨씬 더 먼 미래에 일어날 것 입니다 .

그래서 저는 예수께서 지나가지 않을 세대가 자신이 언급한 이 표적들을 보는 세대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물건들은 1,000년이나 그런

종류의 기간에 걸쳐 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독특한 표적들은 시대의 끝에 꽤 가까이 올 것입니다.

Ridderbos는 여기 서 있는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언급한다고 생각하므로, 여기 서 있는 어떤 사람들은 권능이 부활을 언급하는 것처럼 왕국이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참조 중 하나라는 데 반대하지 않지만, 세 개의 공관복음서는 모두 장 구분 없이 변형을 즉시 제공하고 다른 두 개는 장 구분이 있지만, 복음서 저자들은 장 구분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예수가 모호하게 말한 것은 의도적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그것이 2,000년이나 실제로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우리가 알도록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리더 보스는 파루시아 우화는 승천과 파루시아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있음을 지적 하지만, 그것이 몇 년인지 몇 세기인지 미리 알 수는 없다고 지적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수세기를 지나서 뒤돌아보면, 기독교가 진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세기가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 예언의 성취와 완성은 어떨까요? 공관복음서는 종말론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요한계시록이 가장 가까울 것이고, 그에 대한 모든 논쟁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조각의 다양한 모양과 색상을 보고 퍼즐 조각을 조립하는 상황이 있지만, 모든 조각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전체 그림이 없습니다. Ridderbos는 모순을 일으키기 위해 과도하게 억압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여러 가지 가르침을 보지만, 실제로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사실 좋은 일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쓰여진 많은 것들이 너무 강조 되면, 저자가 의도한 것 이상을 하려고 하면, 저는 여기서 신을 신성한 작가로 생각하고, 인간이 쓴 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러한 특정 특징들이 나타나고, 너무 강조 되지 않더라도 일관성이 있다고

제안합니다. 무엇보다도 거짓 메시아에게 속지 않도록 표적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징조가 슬픔의 시작이 있을 것이고, 황폐의 가증한 것이 있을 것이고, 큰 환난이 있을 것이고, 우주적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러한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다른 방향으로 도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리더보스는 황폐의 가증한 것은 유대적 요소와 보편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동의한다. 내 제안은 이것이 Ridderbos 에 맞는 것보다 premill 뷰에 더 잘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밀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세기의 아밀레니얼리스트 들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19세기의 일부 전천년설자들은 예상했습니다. 저는 저의 책인 Fulfilled Prophecy에 Samuel Kellogg의 기사가 있는데, 그는 1880년대에 이스라엘의 귀환을 확실히 예상했고, 언제 일어날지 예측하지 않았지만, 성경 자료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징조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징조는 슬픔의 시작, 황폐의 가증한 것, 큰 환난, 우주적 재앙입니다. 리더보스가 말했듯이 황폐의 가증한 것은 유대적 요소와 보편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당시에 살았던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에 그가 인자로서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목격할 것입니다. 그의 적들도 포함됩니다. 저는 그것이 요한 계시록에서 보는 것처럼, 제자들이 여러 차례 본 환상을 포함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는 그의 적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글쎄요, 첫째,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생각했지만, 둘째, 대제사장들이 겁먹은 병사들이 달려와서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돌담을 쌓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았지만, 계속해서 그분의 원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추종자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중요한 요점은 왕국의 도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에 그것을 신속하게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심하세요. 아무도 그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동안 큰 일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왜 여기 있는 걸까? 리더보스가 그의 책 전체에서 가장 약한 부분은 예언과 역사에 대한 부분인 듯하다. 그는 예언에는 시간적 관점이 부족하고 사실 예언의 경륜적 산봉우리와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하는데, 나는 그것에 동의한다. 그것은 우리가 도표를 그려서 모든 조각이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확신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방향으로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리더보스는 먼저 서기 70년 예루살렘의 함락과 두 번째로 시대의 종말처럼 유대적 요소와 보편적 요소가 뒤섞인 것을 봅니다. 그는 이러한 뒤섞임이 형식 비평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마치 복음서 기자들이 모두 서기 70년 이후에 글을 쓴 것처럼 사후 해석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제안합니다. 오히려 그는 선지자가 자신의 지리적 지평을 포함하여 자신이 아는 색으로 미래를 그린다고 말합니다.

그는 시적이며, 우화적 언어보다는 비유적 언어를 사용합니다. 저는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지만, 종말론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특정한 관점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당신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특정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준비하셨다면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놉틱 복음서에는 신학적 가르침을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 다른 주제들이 있지만, 저는 리더보스가 이 용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왕국의 도래, 이 구절, 왕국의 도래. 그럼, 성경 신학, 시놉틱 복음서에 대한

간단한 투어이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거기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집어냈고, 저는 그것이 그 목적에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그럼 나중에 강좌의 11번째와 12번째 섹션을 살펴볼 때 다시 뵈겠습니다.